21년된 장성 상무대 시설 낙후… 재건축 절실

시설 현대화·아파트 개선 등 예산 1~2조 필요

국회 국방위 방문… 전방부대 예산에 밀려 확보 난항

지난 1994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장성으로 이전한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 상무대가 올해로 이전 21년을 맞았다. 이전 당시만해도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자랑했지만, 이후 노후화되면서 개선 및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당국도 신축 이전 30년째인 오는 2024년 시설현대화와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에 나설 방침이지만 약 1조원 이상(추정치)인 소요예산이 난제다.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무대를 처음으로 방문해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군 당국의 설명을 들었다.

보병, 포병, 기계화(기갑), 화학, 공병 등 모두 5개의 전투병과가 자리한 육군 최대 교육시설이지만 이전 21년을 맞은 상무대 시설 내부는 개보수만으로는 한계에 이를 만큼 노후화됐다는 것이 군당국의 입장이다.

군은 이전 30년째인 2024년 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변화한 교육시스템에 따른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도 절실하다. 19~21평형 군인아파트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에 국방위원들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대 측은 주요시설을 재건축하는 시설현대화에 최소 6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추정했다. 여기에 스마트 교육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65억원, 주거·복지환경 개선에 15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유일하게 예산이 확보된 것은 훈련장 확보·개선 비용 187억여원 뿐이다. 최소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사업 예산은 1조원에 이른다. 상무대 측은 1994년 광주에서 장성으로 이전할 당시 소요된 공사비 등을 근거로 이 같이 추정했기 때문에 20여년이 지난 현재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단가 등을 고려하면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성 이전 당시 군은 광주 상무대 부지 매각 자금으로 비교적 손쉽게 이전 비용과 시설 신설비용을 충당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정된 군 예산에서 교육사령부의 예산은 대부분 전방부대 예산보다 뒷순위로 밀리는 탓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상무대 관계자는 "현재 21년을 맞아 부분 개보수를 하고 있지만, 30년이 되는 해에는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며 "후방교육도 군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상무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대 군사교육 시설로, '상무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1952년이다. 대한민국 육군 전투력의 근간을 이루는 초급 간부들을 육성하는 산실로, 1994년 보병, 포병, 기계화, 화학 등 4개 학교가 광주에서 이전했고, 1995년 경남 김해시에 있던 공병학교가 합류했다. 현재 광주의 평동 군 훈련장의 상무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이산가족들 "건배"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둘째날인 21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공동중식 만찬에서 북측 송병상(82) 할아버지 가족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등 입학 2년 앞당기고 학제 개편 검토

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문제 대책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에 사활 건 전남도

광양만권구역에 편입 추진

컨소시엄 대기업 참여 유도

전남도가 해외 자본 컨소시엄에 건설 분야의 국내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호텔·면세점 분야에 국내 탑 클래스 관광 운영회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 해외 대규모 카지노 운영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컨소시엄 구성 전략을 마련해 국내외 투자자 컨소시엄 측에 제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경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키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11월께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1일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이낙연 도지사, 김성곤·주승용·이정현 국회의원, 주철현 여수시장,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여수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도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남도는 컨소시엄에 국내 대기업 참여 유도, 호텔·면세점 운영회사 유치, 해외 대규모 카지노 운영사 참여 등과 함께 경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로 편입시켜 개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내외 투자자 컨소시엄에 제시했다.

또 사업제안서 작성 시 그동안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제시된 ▲가족단위 휴양 및 위락형 섬 콘셉트 설정 ▲다양한 해양테마 시설을 도입해 타 지역의 집합 건물형과 차별화 ▲외국인이 일부 거주(투자이민제)하는 미니 국제도시 조성 ▲중·일 크루즈 관광객 확대 유치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국내관광 파급효과 극대화 등을 제안서에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경도를 복합리조트로 조성하면 1만1000개의 일자리와 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전국 34개 콘셉트 제안 요청서 평가 결과 여수 경도를 비롯해 경남 1개소, 부산 1개소, 인천 6개소 등 4개 시도, 9개소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내년 2월 말까지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남도한바퀴' 외국인 참여 관광상품으로 육성

80명 대상 팸투어

전남도가 전남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해설사가 동행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를 외국인도 참여하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1일 중국·일본·미국·캐나다·대만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세계대나무박람회장인 담양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길,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체험장 등 '남도한바퀴' 1코스 구간에서 팸투어를 가졌다. 전남도는 관광지 안내를, 한국관광공사는 팸투어 참가자 모집 및 통역 제공 등 역할도 나눴다.

이날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참가 외국인에게 대통밥, 떡갈비 남도음식 체험, 담양한과 만들기 체험을 통해 남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했다. 이들이 홍보요원이 돼 서울 등 수도권을 찾는 외국인에게 '남도한바퀴'를 적극적으로 알리게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계획이다.

안기홍 전남도 관광과장은 "뛰어난 관광상품인 남도한바퀴가 타지역과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해 한국관광공사와 이번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며 "향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남도한바퀴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는 개별 자유여행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해설을 들으면서 전남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전남도 대표 여행상품이다. 전남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8개 노선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9900원이다.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www.namdokorea.com)이나 금호고속 관광콜센터(062-360-8502)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신안 송공항·전북 군산항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주요 항만과 연안습지보호지역 등에서 바닷속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신안 압해 송공항, 전북 군산항을 비롯해 경기 평택·당진항, 인천 선진포항, 충남 비인항, 경남 장승포항, 경북 울릉항, 제주 서귀포항 등을 중심으로 해양폐기물 약 900t을 걷어낼 계획이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그물 등 침적 쓰레기는 해양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을 발생하게 한다. 폐어구와 폐어망은 선박 추진기관에 걸려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 원 모 집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구 분	근 무 처	응 시 자 격
연구개발	경 력	광 주	☞ 마이컴, 임베디드, VHDL 설계 유경험자 ☞ 전자회로 및 PCB 설계 유경험자 ☞ PC기반 프로그램머
설치 및 A/S	경 력	광 주 경 남	☞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전공자 ☞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생산/관리	경 력	광 주	☞ 품질관리, 전기, 전자 전공자
전화응대(A/S)	신 입 경 력	광 주	☞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공장장 (황칠추출)	경 력	황칠코리아 (강진)	☞ 건식 추출 해당부분 10년 이상 전문 종사자 (연봉 : 6,000~7,000) ☞ HACCP , GMP 유경험자
인바운드	신 입 경 력	황칠코리아 (광주/강진)	☞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모집부문	대표이사 수행비서		

☞ 공통사항 : 1. 남자의 경우 병역필 및 운전 가능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1. 전형방법 1) 서류전형 2) 면 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원서접수 및 문의사항

1) 접수기간 : 2015년 10월 19일(월)~2015년 10월 31일(토)
2) 접수방법 : E-mail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10(소촌농공단지) 총무부 (우:506-803)
E-mail : ziontech@daum.net
4) 문의사항 : (주)시온테크닉스 총무부 (062)944-3400

(주)시온테크닉스 / (주)황칠코리아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 · 성범죄 · 교통사고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대여금 · 공사대금 · 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NS종합건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갈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초청합니다

채용부문
• 공사관리 본부장 겸 임원 ---------- 1명
• 아파트현장 1,600세대 현장대리인 ------- 1명
• 아파트현장 400세대 현장대리인 ------- 1명

자격요건
• 대표이사 면담으로 결정

근무조건
• 동종업계 최상급 대우 보장

지원문의
• E-MAIL : queensvill@daum.net
• 면 담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24, 10층 엔에스종합건설㈜
• 접수마감 : 2015년 10월 31일 限
• 문의전화 : 대 표 이 사 (010-3635-1815)
경영관리부 (062-572-5500)

NS종합건설